

'90년대 육계업 경기 전망

강 석 부 / 본회 수원분회장, 부영농장 대표

80년대의 변화무쌍한 육계업을 마감하고 희망찬 90년대를 맞이하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80년대의 육계업은 생산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80년초 부업규모의 육계에서 지금은 전업규모로 양적 증가를 해왔고 또한 생산성 면에서도 10년 동안 사료요구율이 2.5에서 2.0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생산관리에서도 가족 중심의 노동과 비닐하우스 형태의 계사 시설에 의한 생산활동이 계사규모가 커지고 일부는 급이·급수시설이 자동화되어 대량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통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생계유통에서 도계유통으로 정착됐다고 본다.

또한 80년대 중반부터는 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을 느끼면서 우리 육계업계는 초긴장 상태에서 생산과 유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단어와 함께 육계의 계열화가 새롭게 등장하여 생산에서 유통·판매의 일원화로 생산 원가를 낮추고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그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육계업계는 안정적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 생산자의 여망과는 달리 육계업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하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80년대에서 특이하게 보고 갈 것은 정부가 육계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계열화 지원금 및 시설개선과 유통 비축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줄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80년대의 육계업은 시대의 요구에 의하여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 왔으나 제일 중요한 생산자의 사망감과 소득 향상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우리 육계인의 반성과 각오가 더욱 더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가오는 90년대의 육계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단전을 말해 보자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97년까지 닭고기를 비롯한 전축산물이 완전개방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앞으로 7년여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100%는 아니어도 매년 조금씩 수입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육계업은 현재와 같은 인식과 생산에 임하였을 경우 풍전등화의 육계업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겠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90년대를 맞는 우리 업계의 최대 관심이자 고민거리인 것이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 업을 사수하고 생업으로서 먹고 살자면 수입개방에 대한 묘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묘안은 멀리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창출하고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육계인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계육생산비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900원대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이 800원대, 태국이 700원대, 미국이 가장 저렴한 500원대에 생산된다. 90년대의 폭풍우처럼 밀어 닥칠 개방압력과 국제화시대에 진입하면서 세계의 소비자들은 자기 나라 것이고 남의 나라 것이고 따질 것 없이 가장 싸고 품질 좋은 닭고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홍수처럼 들어와 있고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어 가면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도 계육을 600원대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구축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 이렇지 못할 경우 90년대를 지나면서 할 수 없이 이 업을 포기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육계업자는 600원대의 계육 생

산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또 연구하고 개선하여 90년대 육계업의 주인으로서 살아 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계육 생산에 연관된 병아리, 사료, 약품 등 모든 원자재도 빨리 원가를 낮추어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인식하에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법적·제도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

세철폐 등 이러한 부분을 정부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앞장서서 해결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이상과 같이 지난 80년대와 90년대의 육계업의 과거와 미래를 필자 나름대로 피력하였지만 결코 실망만할게 아니라 전화위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자 및 유통업자, 정부는 모두 90년대에는 위에서 말

**90년 전반기는 병아리가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후반기부터는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그러나 전반기 중에도 3월 부터는
환우계로부터 10~15%의 병아리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심스런 입추조절이 요망된다.**

표1. 연도별·월별 육계전기 사료소모량

(단위 : 톤)

월 \ 년	85	86	87	88	89
1	19,582	21,030	21,648	24,037	28,424
2	19,610	12,095	23,396	24,217	27,197
3	22,739	24,516	26,486	31,827	35,710
4	23,419	26,345	30,315	35,227	36,044
5	25,918	31,023	33,002	39,549	39,590
6	28,568	34,162	40,062	43,851	47,071
7	27,056	34,411	38,165	38,284	44,156
8	24,418	29,933	34,328	31,743	39,233
9	19,900	26,111	29,176	26,870	33,649
10	17,697	23,605	25,319	28,538	33,504
11	18,823	23,193	23,716	31,884	35,760
12	20,480	26,885	26,979	33,860	38,500
계	268,210	322,309	352,574	389,887	400,334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도 계속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90년도 육계전망

'89년도 육계경기는 안정과 흑자경영이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병아리 가격이 400원대 이상이고 사료비도 인상되어 원가부담이 컸지만 육계가격 역시 1,000원대를 웃돌아 질병없이 꾸준히 입식한 육계농가는 어느 해보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을 것이다.

(1) 육용병아리 및 계속생산 전망

9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전반기는 적정량 보다 적게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8월부터는 많은 양의 육용병아리가 생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기 중에도 3월부터는 환우시킨 종계로부터 10~15%의 병아리가 편입될 예상이므로 조심스런 입추조절이 요망된다.

병아리가격이 장기간 높다 보니까 일부 지방에서는 백세미가 등장하여 이것 역시 봄철부터 시중에 대량 쏟아져 나올 경우 육계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 후반기에 병아리가 증가하는 이유는 89년 7월부터 연말까지 육용종계 입식이 전년대비 22%가 증가하였다. 물론 소비증

가와 대비하여 큰 증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금년 후반기는 적정한 병아리 생산에서 충분한 공급과 초과되는 시점이 되면서 양축가들의 신중한 입추가 요망된다.

(2) 소비

금년도 소비의 주축은 외식산업에서 활발히 될 것이 예상되며 이들의 요구중량이 생체 1.4~1.5kg이므로 병아리 소비와 전기사

표2. 육용종계(P.S)입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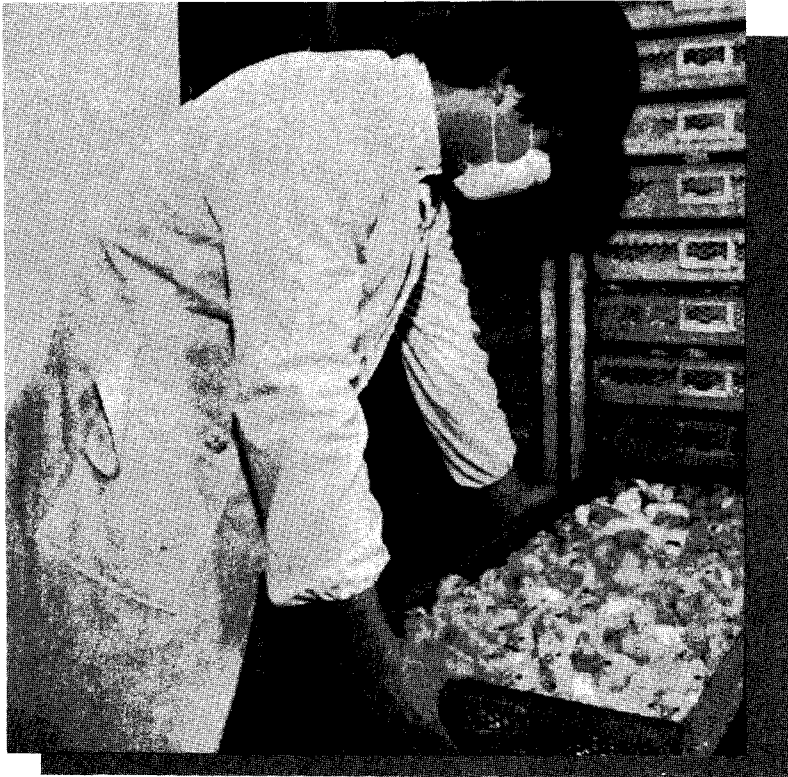
(단위 : 주)

월 \ 년	85	86	87	88	89
1	74,920	74,900	107,500	131,500	85,386
2	104,200	157,600	160,300	177,891	202,000
3	145,900	154,360	195,000	297,766	282,835
4	152,800	137,300	222,100	267,400	235,998
5	186,300	149,500	240,250	198,910	222,005
6	148,300	110,400	202,300	232,000	190,080
7	138,350	211,450	280,726	297,510	259,769
8	156,800	147,400	269,150	198,250	281,572
9	120,200	172,100	239,930	240,572	246,756
10	159,600	165,600	205,360	210,762	227,100
11	79,000	99,840	103,530	111,278	209,250
12	60,100	89,300	126,058	108,518	184,434
계	1,525,750	1,778,550	2,352,654	2,472,357	2,627,184

표3. 연도별·월별 육계가격

(단위 : 원/kg)

월 \ 년	85	86	87	88	89
1	1,115	966	1,002	947	1,363
2	999	740	726	951	900
3	788	650	816	712	829
4	869	800	880	682	803
5	881	957	972	747	779
6	873	898	816	646	998
7	945	895	858	908	1,190
8	1,111	908	602	1,055	1,265
9	840	630	511	1,014	814
10	650	608	447	912	860
11	831	885	611	1,094	1,050
12	940	840	731	1,117	1,150
계	903	815	748	899	1,000



**가공식품개발 및
판매촉진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자연증가와 더불어
외적인 둔화요인만 없다면
금년도 소비는
20% 정도의
높은 소비신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료 소모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소,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상에서 유지될 것이 예상되어 닭고기 소비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열주체의 가공식품개발 및 판매촉진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자연증가와 더불어 외적인 둔화요인만 없다면 금년도 소비는 20% 정도의 높은 소비신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3) 육계경기

병아리가격은 북경기까지 평균 350원 이상 유지될 것이며 그 이후는 계절적 입시기피 및 병아리

생산증가 등으로 후반기는 200원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육계가격 역시 병아리 경기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3월부터 증가하는 병아리가 출하되는 4~5월에는 소비증가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어 일시적으로 생산비 이하 가격도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금년 북경기까지의 육계가격은 생산비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반기는 병아리의 과일생산 요인과 계절적인 소비둔화 등으로 700~800원대로 유지하면서 올 한해를 마감할 것으로 본다.

(4) 결론

금년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정반대의 경기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요인은 병아리 생산량과 육계경기는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병아리가격이 육계생산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육계생산자는 항상 타의에 의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통감하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올해에는 우리 육계인 모두가 강구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영남**